

경제

# 기아차 분기 순이익 첫 1조 돌파

## 2분기 62만2264대 판매 ... 매출 11조5805억원 '사상 최대'

### 영업이익도 1조319억원

기아자동차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올 2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사상 처음으로 각각 1조원을 돌파했다.

기아차는 지난 29일 서울 우리투자증권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인 62만2264대를 판매해 매출(국제회계기준·IFRS) 11조5805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조319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12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 25.2%, 영업이익 55.8%, 순이익66.8% 각각 증가했다. 특히 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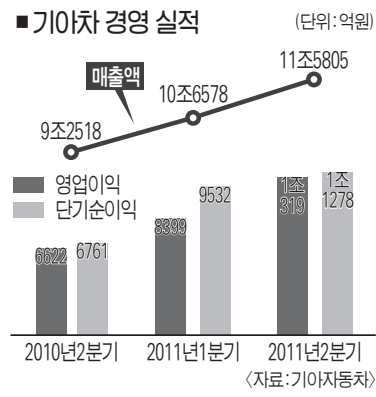
이 같은 사상 최대 실적은 모닝·K5·스포티지R 등 주요 차종 신차효과

와 판매단가 상승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원화 절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물량 증가, 안정적인 원가구조 유지, 판매관리비 지출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끌어올렸다.

기아차의 실적은 증권가 평균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증권가는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9341억원, 순이익 9307억원 수준으로 내다봤지만 두 지표 모두 1조원을 넘긴 것이다.

기아차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17조466억원)보다 30.5% 증가한 22조2383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국내 매출액이 9조 1000억원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고 북미가 6조7000억원으로 30%, 유



럽이 6조1000억원으로 27%, 호주 4000억원으로 2%를 점유했다. 특히 미국시장에서 K5와 스포티지R·쏘렌토·쏘울 등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북미 매출이 전년보다 5%포인트 신장했다.

판매대수로는 올 상반기 124만 1352대를 팔았다. 지난해보다 판매량

이 25만여대 증가한 것으로, 국외시장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국내 24만8000대, 미국 24만5000대, 유럽 13만7000대, 중국 19만대 등으로 미국시장은 1년새 44.1%, 중국 시장은 18.2% 늘어났다.

이재록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하반기에도 프라이드 후속모델과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CUV) 등 신차를 출시해 판매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 상반기에 연간 생산 목표치(48만3000대)의 절반 이상인 25만대를 돌파했다. 스포티지R이 9만183대로 가장 많았고, 쏘울이 8만6849대, 봉고트럭 5만1902대, 뉴카렌스 2만1070대, 버스·군수 2127대 등 올들어 6월 말까지 25만2131대를 생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청렴선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근)는 지난 29일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클린 직장 만들기 선언식'을 하고, 알선·청탁·금품·항응 근절 및 부당한 간섭 배제 등 청렴의식 함양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등을 다짐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 “사상최대 이익 손보사 車보험료 내려야”

### 올 순이익 3조, 소비자 “적자라며 보험료 올리더니”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가 심각하다며 보험료를 올리고 운전자 부담까지 늘렸던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수준의 이익을 즐기고 있다.

◇“적자보전” 명목 車보험료 올리자 사상최대 이익=지난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부분의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며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온라인 손보사들은 두 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더구나 올해 들어서는 자기차량(차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면 되던 것을 손해액의 일정부율로 바꿔 실질적으로 운전자

부담을 늘렸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간과 할증 적용 대상도 대폭 늘렸다.

그런데 이처럼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고 운전자 부담을 늘리자마자 손보사들의 이익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해 소비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11회계연도 1분기(4~6월)에 272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대비 60% 급증한 수치로 사상 최대 이익이다. 현대해상도 순이익이 배로 늘어 1377억원의 사상 최대 이익을 올렸다.

실적을 공시한 10개 손보사의 분기 순이익은 6989억원에 달해 작년 동기의 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순이

익은 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온라인사도 모두 흑자전환=손보사들은 투자이익이 크게 늘어난 덕을 봤을 뿐 자동차보험 부문은 아직까지 적자라며 보험료 인하에 손사래를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손보사의 실적 개선은 이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에코다움만이 적자를 냈을 뿐 악사, 하이카, 더케이 등 3개 온라인사의 순이익 합계는 16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원 적자에 비해 환골탈태한 모습이다.

이번 폭우로 침수 차량이 속출해 수백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회성 비용만을 감안한다면 손보사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연방뉴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190여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농가상담실 운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6000여 ha) 확대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의 이미지를 살려 전남 브랜드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점 사업을 발굴·육성해 축협이 지역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새 노조 ‘중도’ 표방

### 조합원 200여명 확보 ... ‘상급단체 가입 않고 단일 노조로 활동’

광주·전남의 대표적 강성 노조 사업장으로 꼽히는 금호타이어에 중도 실용을 표방한 새 노조가 출범했다.

금호타이어노동조합(위원장 박영귀)은 지난 29일 광주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비정규직·일반직·관리감독자 구분없이 노동자 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중도실용의 민주노조를 만들겠다”며 새 노조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조합원 64%의 찬성으로 일 단협을 마무리했지만, 일부가 투쟁하지 않고 굴욕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부를 탄핵하고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새 노조는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비롯된 투쟁 만능주의를 탈피하고 정책적 대안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보일 것”이라며 “워크아웃은 회사만의 위기가 아닌 구성원 전체의 위기



중도실용 노선을 표방하며 출범한 금호타이어노동조합은 지난 29일 광주공장 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노조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임을 인식하며 하루빨리 워크아웃을 줄이고 일터가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지난달 15일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달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당초 조합원 46명으로 출발한 새 노조는 2주일만에 200여명의 노조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귀 위원장은 “내년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700~100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당분간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단일 노조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휴가를 마친 뒤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 회사 측과 실무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4개 자치구·나주시 상용직 임금 인상 타결

광주시 4개 자치구와 나주시가 상용직 근로자들의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3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은 최근 광주시 동·남·북·광산구 등 4개 자치구 및 나주시와 2010년 임금 0.8% 인상, 2011년 임금 3% 인상, 2013년 호봉제 도입을 받아들여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상용직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자치구와 26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8일 지노위에 조정신청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당첨번호	2등번호	3등번호	
8 10 18 30 32 34 27	27	2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276,902,000	9
2	5개 숫자+번호 순서 일치	39,903,188	48
3	5개 숫자 일치	1,475,619	1,298
4	4개 숫자 일치	50,000	66,864
5	3개 숫자 일치	5,000	1,112,471

### 전남농협 축산사업 3년 연속 전국 1위

#### 유통사업 고른 성장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김용복)가 경제·금융사업에 이어 축산사업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1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축산부문 종합업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3년 연속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농협 전남본부는 축산분야 유통사업 활성화, 생산기반 조성, 경제사업

육성 등 3개 분야 7개 평가항목 전문에서 고른 성장을 보였다.

축산물 공동판매 실적은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 확대와 지리산순한한우·녹색한우 등 브랜드축산물 판매 확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성장한 2847억원을 올렸다.

경제사업도 구매·판매·가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난해 4460억원보다 940억원이 증가한 5400억원을 기록, 올해 목표 1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190여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농가상담실 운영,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6000여 ha) 확대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의 이미지를 살려 전남 브랜드축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영점 사업을 발굴·육성해 축협이 지역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시설분과 영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323-1772 (문의)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동점, 대인동 소문사건사건)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책로 IC교통장점 접 코너
- ▶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250평(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8.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 토지매매

### 위치: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삼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부동산 경제,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관공호) 대1846m2, 2764m2 감평가 90억 최저가 50억	신안동 (4층근린시설) 대385m2, 21191m2 감평가 13억9천 최저가 3억9천	용양동 (원룸) 대201m2, 21465m2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2억6천	일곡동 (원룸) 대199m2, 2345m2 감평가 3억9천 최저가 2억2천	목포해안동 (1모텔) 대830m2, 22767m2 감평가 25억2천 최저가 11억3천	담양금성(원천) 대83527m2, 210821m2 감평가 156억9천 최저가 109억7천	계림동(의리시설) 대837m2, 214084m2 감평가 32억9천 최저가 14억4천
--	---	--	---	---	---	--

유통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광주역동 공장 ▶ 대지 (지시경제부 임대) > 건물879평 ▶ 감평가 15억7천 ▶ 매매가 9억 (협의후결정)	해남 땅골콘도 ▶ 대지 2284평 > 건물 2654평 ▶ 감평가 83억 ▶ 매매가 35억 (협의후결정)	전주 의림리현대 ▶ 대지 4112평 > 건물 1749평 ▶ 감평가 85억5천 ▶ 매매가 65억(협의후결정)	청주 서우나 주차빌딩 ▶ 대지 402평 > 건물 3727평 ▶ 감평가 92억6천 ▶ 매매가 33억(협의후결정)
곡성석곡 공장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감평가 44억3천 ▶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평가 135억 ▶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웅진 골짜기타운 ▶ 대지 29917평 > 건물 4575평 ▶ 감평가 713억4천 ▶ 매매가 250억 (협의후결정)	남원 공장부지 ▶ 대지 2460평 > 건물 1013평 ▶ 감평가 21억3천 ▶ 매매가 10억 (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문부서 011-684-3886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정/토지 정이사 010-5879-0005

소매 대121,2132 평당 59억 296평 5900평	소매 대121,2132 평당 59억 296평 5900평	소매 대121,2132 평당 59억 296평 5900평	소매 대121,2132 평당 59억 296평 5900평
---	---	---	---

병원,교회,사옥,모텔,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전문가(실천)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천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